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대상 수상

- 대상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 강원 속초시·전남 고흥군, 우수상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 각각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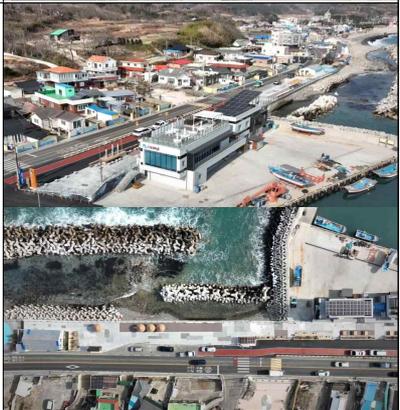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96개소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182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책임자	과 장	장진수 (044-200-6170)
	어촌어항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명상순 (044-200-6171)

참고

경북 경주시 우수 사례

사업 관리	집행률	·수렴항('22.9), 나정항('22.12), 연동항('22.12) 적기 준공 ·어촌뉴딜사업 실집행율 88%	
	사업관리	·(주민 민원) 수렴항 월파방지시설 설치 시 기존 방파벽 철거 반대 → 토목전문가 설명회와 직접 방문 등으로 설득 *나정항의 경우 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 민원 → 시장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해결 ·(주민간 갈등) 소득사업에 대한 주민간 갈등→ 갈등관리 전문가 초빙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합의 도출 ·(사업활성화) 연계 축제(연동 야장, 등대 음악회) 등 개최, 사후 관리 예산 확보('23년 1.8억원)	
사업 성과	수렴항 ('19~'22/ 112억원)	·사업 전 태풍 등으로 연평균 3억원의 복구비 투입, 준공 이후 피해 없음 ·하천으로 단절된 관성마을과 수렴마을을 인도교로 연결, 관성해수욕장 관광객의 수렴항 방문 편의성 제고	
	나정항 ('20~'22/ 73억원)	·나정포차마당, 나정카페 운영으로 주민 소득 증대('23년 94백만원)	
	연동항 ('20~'22/ 75억원)	·노후화된 어촌체험마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마을카페 조성, 연 6천만원 수익	